



(주)LS

006260 | KOSPI | 서비스업

구분 : 정기주주총회 | 일시 : 2014. 03. 28 | 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엘에스로 127 LS타워 지하1층 대강당

Executive Summary

▶ LS는 금번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사내이사 재선임 후보자인 구자열은 최근 원전 케이블 납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LS그룹 계열사인 JS전선에서 최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JS전선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구자열 후보자를 포함해 LS 오너 일가의 자제들이 소유하고 있던 개인회사를 LS계열사 등과 거래를 통해 자원과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 왜곡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있는 등 LS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아울러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 후보자인 신용삼은 현재 LS그룹 계열사인 LS유플러스에서 동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LG그룹과 LS그룹의 관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외이사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Agenda & Recommendations

No	의안	이사회	네비스탁
제1호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1,250원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제3호	이사 선임의 건	찬성	일부 반대
2-1	사내이사 구자열 재선임	찬성	반대
2-2	사내이사 이광우 재선임	찬성	찬성
2-3	사외이사 정진규 재선임	찬성	찬성
2-4	사외이사 권옥현 재선임	찬성	찬성
2-5	사외이사 박수근 재선임	찬성	찬성
2-6	사외이사 신용삼 신규선임	찬성	반대
제4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찬성	일부 반대
4-1	감사위원 정진규 재선임	찬성	찬성
4-2	감사위원 박수근 재선임	찬성	찬성
4-3	감사위원 신용삼 재선임	찬성	반대
제5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반대

[의안 세부 내역]

▶ 제1호 의안 : 제45기 (2013.01.01 ~ 201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예정 내용 :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1,250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해외계열사 보증 수수료 수취에 대한 해외 과세 당국의 원천징수세율 감면 목적의 신규 사업 목적 추가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선임)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사내 이사	구자열	53.03.02	3	재선임	- LG상사 상무 - LG증권 부사장 - LS전선 대표이사 회장	(주)LS 대표이사 회장	고려대 경영학과
	이광우	54.12.03	3	재선임	LG전자 미주법인 상무	(주)LS 대표이사 사장	연세대 영문학과
사외 이사	정진규	46.09.25	3	재선임	법무 연수원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권옥현	43.01.19	3	재선임	대한전기학회 회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	브라운대학교 전기공학박사
	곽수근	53.09.23	3	재선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경영학박사
	신용삼	54.02.12	3	신규선임	- LG CNS CFO - LG경영개발원 사장	(주)LG유플러스 경영관리총괄	서울대 경영학과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사외 이사인 감사 위원	정진규	46.09.25	3	재선임	법무 연수원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곽수근	53.09.23	3	재선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경영학박사
	신용삼	54.02.12	3	신규선임	- LG CNS CFO - LG경영개발원 사장	(주)LG유플러스 경영관리총괄	서울대 경영학과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7(4)	7(4)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35억원	45억원

[제1호 의안]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div><div>Vote Recommendation</div><p>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p><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전년 대비 자산은 약 135억원 감소하여 총 자산은 약 1조 8,149억원 수준, 부채는 약 411억원 감소해 897억원 수준이며 이익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 자본 총계는 약 276억원 증가한 1조 7,251억원 달성- 지주사로서 배당 수익과 관계사 매출 등으로 영업수익은 약 7억원 감소한 1,037억원 달성, 영업이익은 약 39억원 감소해 716억원 수준이며, 당기순이익은 621억원 달성,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70억원 감소- 결산배당은 주당 1,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배당총액은 약 347억원-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 제안</div>	

Discussion

Analysis

▶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제1호 의안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목적에 해외계열사 제반 사업의 경영지도 및 보증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함
- 신규 사업 목적 추가 사유는 해외계열사 보증수수료 수취에 대한 해외과세 당국의 원천징수세율 감면을 위함이며, 해당 사업 목적의 추가가 기존 LS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찬성의 의견을 권고

Discussion

Proposal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u>24. 해외계열사 제반 사업의 경영지도 및 보증 등 지원 사업</u>	해외계열사 보증수수료 수취에 대한 해외과세 당국의 원천징수세율 감면 목적

Analysis

▶ 통신판매업 추가

회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해외 과세 당국의 원천징수세율 감면을 위해 사업목적에 해외계열사 제반 사업의 경영지도 및 보증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상정하였다. 해당 사업목적이 정관에 추가가 되더라도 기존 LS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로서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사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권고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안함.

- 사내이사 후보자 구자열은 LS그룹 계열사인 JS전선에서 최근까지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된 JS전선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통해 봤을 때,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구자열 회장을 비롯한 LS그룹 오너 일가의 자제들이 소유했던 비상장 계열사를 LS그룹 계열사들과 거래를 통해 기업 외형을 확대시키는 등 기업의 자원과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외이사 후보자 신용삼은 현재 LG그룹 계열사인 LG유플러스 등기임원(사내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LS그룹과 LS그룹의 각별한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사외이사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됨
- 사내이사 후보자 구자열과 사외이사 후보자 신용삼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

Discussion

Proposal

▶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후보자 세부 내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사내이사	구자열	53.03.02	3	재선임	- LG상사 상무 - LG증권 부사장 - LS전선 대표이사 회장	(주)LS 대표이사 회장	고려대 경영학과
	이광우	54.12.03	3	재선임	LG전자 미주법인 상무	(주)LS 대표이사 사장	연세대 영문학과
사외이사	정진규	46.09.25	3	재선임	법무 연수원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권욱현	43.01.19	3	재선임	대한전기학회 회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	브라운대학교 전기공학박사
	곽수근	53.09.23	3	재선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경영학박사
	신용삼	54.02.12	3	신규선임	- LG CNS CFO - LG경영개발원 사장	(주)LG유플러스 경영관리총괄	서울대 경영학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의 보호를 위해 효율적인 이사회 구성 필요

▶ 사내이사로서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

사내이사 후보자 구자열은 현재 LS그룹의 지주회사인 LS의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LS그룹의 오퍼로서 그룹 전체의 발전과 최대주주로서 책임 경영을 다한다는 관점에서는 구자열 후보자의 재선임이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JS전선의 불량 원전 케이블 납품 비리 사태를 통해 살펴 본 구자열 후보자의 경영자로서 자질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가질 수 없다.

LS그룹 계열사인 JS전선은 원전 케이블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불량 제품을 납품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 뿐만 아니라 전력 불안 등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 했을 뿐만 아니라 LS그룹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 등 LS그룹 차원의 손실은 상당했다. 그리고 사태의 주범인 JS전선은 주가가 급락했으며 결국 경영진은 JS전선을 자진 상장폐지하고 회사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정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 LS그룹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그 과정에서 JS전선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JS전선의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를 단행하면서 상당수 주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를 보면서 공개매수에 응해야만 했으며, 공개매수 가격 역시 당시 순자산 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거래 정지 시점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인 주당 6,200원의 공개매수로 주주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밝혔지만 1만원을 넘나들던 JS전선의 주가는 원전 비리 사태가 터지면서 3천원대까지 추락했으며 5천원대에서 거래 정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주주 피해 최소화라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공개매수 결정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생색내기 공개매수에 일부 주주들과 언론들이 불만을 제기했으며, 공개매수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어야만 했을 정도로 잡음이 많았다.

그리고 JS전선의 최대주주는 LS전선이며 지분율은 약 70%에 달했다. LS그룹은 JS전선에서 상당한 배당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09년 8월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분기배당 조항을 신설해 10월에 분기배당을 실시할 정도로 LS그룹은 JS전선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막대한 배당 수익을 확보했다. 이렇듯 LS그룹은 JS전선을 통해 이익은 챙겼지만 문제가 되자 즉시 이용가치가 떨어진 JS전선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와 피해를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함께 감수해야 했다.

구자열 후보자는 LS그룹 회장인 동시에 2010년 3월 JS전선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2012년까지 3년 동안 대표이사로서 재직했기 때문에 JS전선 사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JS전선 사태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과 파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소액주주의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구자열 후보자가 LS그룹의 지주회사인 LS의 등기임원으로 재선임 되는 것은 LS 뿐만 아니라 LS그룹 전체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구자열 후보자는 LS그룹의 오너 자제들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 계열사를 LS그룹 계열사들과 거래를 통해 부를 증식하고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LS글로벌은 JS전선을 비롯해 LS그룹 계열사들에게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장기계약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축적해 왔다. JS전선의 경우 LS글로벌이 설립된 2005년부터 LS글로벌로부터 수백억~수천억원의 원자재를 매입해 왔으며 2010년에는 2천억원 이상을 매입하기도 했다. 그리고 매입대금 역시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LS글로벌에 대해 상당한 편의를 제공했다. LS글로벌은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10억원에 불과했지만 설립과 동시에 LS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으며 2012년에는 매출 8천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LS글로벌의 최대주주는 약 85.3%의 지분을 보유한 LS전선과 오너 일가이었는데 그 중 지분 51%는 LS전선이 소유했으며 나머지 34%는 LS그룹 오너 일가의 자제들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다. JS전선 등 LS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몸집을 불린 LS글로벌은 2011년 11월 지분을 전량 LS에 매각하게 된다. LS글로벌 설립 당시 주당 5천원에 취득한 LS글로벌 주식은 LS에 주당 100,150원에 매각되었다. LS의 오너 일가의 자제들은 일거에 20배 이상의 매각 차익을 올리며 수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구씨 일가가 LS글로벌에 투자한 금액은 고작 3.4억원에 불과했지만 6년만에 68.7억원으로 돌아와 자그마치 65억원이라는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자열 후보자의 아들인 구동휘도 포함되어 있다. 구동휘는 LS글로벌 매각대금으로 14.7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JS전선 자진 상폐시 공개매수에 나섰던 구자홍, 구자용 등 오너 일가의 자제들이 빠짐없이 LS글로벌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처럼 구자열 후보자는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에 대해 그룹 계열사를 활용해 지원함으로써 LS그룹의 자원과 이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등기임원으로서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전체의 권익 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구자열 후보자에 대해 재선임 반대 의견을 권고하는 바이다.

▶ 사외이사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

LS의 사외이사 신규 선임 후보자인 신용삼은 LG경영개발원 사장, LS CNS CFO 등을 거쳐 현재 LG유플러스 경영관리 총괄 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LG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거치고 현재 LG그룹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전형적인 LG맨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LS그룹은 LG그룹에서 독립했으며 상호 지분 관계는 없으나 상당히 밀접한 인적 관계로 맺어져 있다. 그리고 LS그룹의 모태인 LG그룹에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신용삼 후보자가 LS그룹의 지주회사인 LS에서 사외이사로 아무런 외부의 압력 없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 가운데 재선임 되지 않고 신용삼 후보로 교체 예정인 윤명림 사외이사 역시 LG그룹 계열사인 LG증권과 LG카드 출신이다. LG그룹 출신이 연속해서 사외이사로 선임된다는 사실을 통해 LG그룹과 LS그룹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견제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외이사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안함.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자 신용삼은 앞서 이사 선임의 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LG그룹에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점과 LS그룹과 LG그룹의 각별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감사위원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함

Discussion

Proposal

▶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후보자 세부 내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정진규	46.09.25	3	재선임	법무 연수원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곽수근	53.09.23	3	재선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경영학박사
	신용삼	54.02.12	3	신규선임	- LG CNS CFO - LG경영개발원 사장	(주)LG유플러스 경영관리총괄	서울대 경영학과

Analysis

▶ 감사위원으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

신용삼 감사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앞서 이사 선임의 건을 통해서 사외이사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위원 역시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이유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신용삼 감사위원 후보자의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하는 바이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안함.

- LS 이사회는 전년과 동일한 7명의 이사(사외이사 4명 포함)에 대해 전년보다 10억원 증가한 45억원의 보수 한도를 제안
- 연결 기준 LS의 2013년 매출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데 반해 영업이익은 24% 감소,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2.7% 감소하는 등 매출 감소에 비해 이익 감소율이 현저히 높음
- 7명의 이사 가운데 사외이사가 4명이고 사외이사 보수액이 낮고 사내이사 보수액이 높다는 점, 그리고 사내이사 3명 가운데 구자열 이사와 구자엽 이사 등 오너 일가로 구성되어 있음
- 2012년도 7명의 이사(사외이사 4명 포함)에 대해 보수 한도 35억원 중 약 30억원을 집행하여 약 85.7%를 집행
- 실적의 감소와 보수한도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사보수 한도를 약 29%(10억원) 증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권고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나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보수의 책정과 지급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

Discussion

Proposal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7(4)	7(4)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35억원	45억원

실적에 따른 경영진 보상 필요

▶ 이사 보수 지급 체계의 불투명

LS의 최근 사업연도의 이사 수와 보수한도액,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 포함)

구분	2012	2013	2014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7 (4)	7 (4)	7 (4)
주총승인금액(백만원)	3,500	3,500	4,500
실제 지급액 (단위:천원)	2,990	1,461 (9월말 기준)	(예정)

위의 표에서와 같이 LS 이사회는 금년 이사 보수 한도를 약 10억원 증가해 45억원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임원의 보수는 주주가 임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임원의 보수는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주의 몫 등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2013년 LS는 연결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약 3.6% 감소한 11조 4천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약 24% 감소해 4,530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약 23% 감소해 1,652억원을 기록했다. 개별 기준으로도 LS의 영업수익은 약 7억원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약 40억원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0억원이나 감소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 감소 등을 고려해 LS는 전년 과 동일한 주당 1,250원의 배당을 책정했다.

그런데 실적 감소와 배당 동결에도 불구하고 이사 보수 한도만은 자그마치 10억원이나 상향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한 수준이다. 더욱이 이사 7명 가운데 사외이사 4명의 보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므로 보수 대부분은 사실상 사내이사 3명의 몫이다. 그리고 사내이사 3명 가운데에는 구자열 이사와 구자엽 이사 등 LS 오너 일가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사 보수 한도 증가는 오너 일가의 보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2012년 LS는 동일하게 7명의 이사(사외이사 4명 포함)에 대해 보수한도 35억원 가운데 약 30억원을 집행해 전체 보수 한도 가운데 85.7%를 집행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보수 한도의 증가는 실제 보수의 증가로 연결될 소지가 많다.

물론 탁월한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 경영진에 대해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하지만 LS는 실적이 감소하였으며, 작년 한 해 JS전선 사태 등 그룹 차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으나 이는 대부분이 경영진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경영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보수 한도를 증액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안하는 바이다.

아울러 임원의 보수가 임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만큼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와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네비스탁의 독립적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의견결론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결론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의 권고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의 내용은 네비스탁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네비스탁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비스탁은 본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자료, 정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를 포함한 네비스탁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네비스탁의 소유입니다.

㈜네비스탁

www.navistock.com